

# 최초의 방대한 한국문학사 작업

조동일 지음 「한국문학통사」 전5권

具仲書

문학평론가 · 수원대 교수 · 국문학

안자산의 「조선문학사」가 출간된 것이 1922년의 일이다. 그 뒤로 사회에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이명선, 조운제, 김사엽, 조연현, 이병기·백철, 김윤식·김현, 장덕순, 김동욱의 우리나라 문학사 저작들이 계속 출간되어 왔다.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1982년에 제1권이 나왔고, 올해에 들어 제5권이 나왔다. 처음에 이 「통사」는 제6권까지 계속 출간할 계획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이번의 제5권과 제6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꽤 벌어질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번의 제5권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제6권은 보아야 할 작품이 제5권보다도 월등히 많아 쓰기 힘들고, 또한 문학사의 분단 극복이 제5권에 비할 수 없이 어려우므로 몇 해 안에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제6권 집필이 지연되더라도 불성실하고 책임감이 모자란다고 나무라지는 않기 바란다.” 저자가 이렇게 예고하고 있으므로 이번의 제5권 출간을 계기로 그 동안 전개되어 온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저술 작업에 대해 한 차례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조동일 통사 제5권은 김동욱의 「국문학사」가 출간된 1976년으로부터 12년 뒤에 나온 것이며, 조동일과 비슷한 연배인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가 1973년에 출간된 데 비해 15년만에 나온 것이다. 60년대로부터 시작해 특히 70년대 이래 국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학문적 업적들이 날로 왕성하게 축적되어 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미 나온 우리나라 문학사 저작들로부터 10여년의 기간을 가졌다는 점과, 조동일 특유의 정력적인 학구 태도까지 합쳐 이번의 「통사」 제5권까지의 작업을 관심있게 주목하게 된다.

## 고전·현대문학 연결, 비평적 시각 돋보여

한국문학사 기술을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 여건이 국내 우리 사회에 있다. 동시에 방대한 이 여건에서 최선의 문학사를 쓴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힘든 일일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그 방법론의 규모와 체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따르며, 문학사가로서의 자격 문제까지 따른다. 이 ‘자격’ 문제는 근래에 우리나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전통면에서 하나로 연결해 보아야 한다는 각성에 연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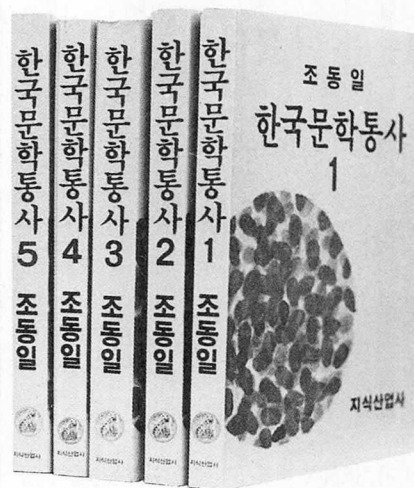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이미 나온 문학사 저작들로부터  
10여년을 기다려 이루어진  
방대한 규모의 저술이라는 점에서  
일단 관심과 주목을 끌 만하다.  
본문기술에 담긴 충실한 내용과  
그것을 다루는 정연한 논리력,  
그리고 매단원의 끝에  
제시한 참고문헌 등은  
그것만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것이며, 또한 현대문학의 분량이 날로 증대해 가는 사정에 따르는 것이다. 즉, 문학사가는 고전문학 유산에 대해 문헌학적 정리를 가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현대문학 작품들에 대한 문예비평적 기능까지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고전문학 기 작품들에 대해서까지 문예비평 기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상 이러한 각성은 서양에서 1940년대에 엘렉과 위켄이 「문학의 이론」에서 밝힌 바 있다. “예술 작품은 계속해서 비평의 원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분석도, 특성을 밝히는 일도, 가치평가도 불가능하다. 문학사가는 역사가가 되기 위해서도 비평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한국의 문학사가들 중에서는 임화, 백철, 조연현, 김윤식·김현 등이 비평가를 겸하였다. 그런데 임화는 신문학사 부분만 다루었다. 백철은 고전문학기를 가람 이병기에게 맡기고 현대문학기만을 맡아 합작으로 「국문학전사」를 썼다. 조연현은 제목에서부터 「한국현대문학사」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김윤식·김현은 「한국문학사」라는 제목으로 “영·정조대에서 4·19에 이르는”문학사를 썼다. 그러면 영·정조대 이전 고려 속요와 신라 향가에 대해서는 문학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김윤식·김현은 오늘날까지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동일은 1960년대 후반에 문단적 문예비평가로 활동한 적이 있다. 이 점에 근거해 조



동일도 문예비평가를 겸하는 국문학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위치에서 그가 ‘원시 구석기문화’에서부터 1945년 민족해방 직전까지의 통사적 한국문학사를 썼다. 그 분량은 각권 평균 국판 500여 면으로 이번에 우선 다섯 권째의 책을 냈다. 이것은 한국문학사 저술 분야에서 처음 있는 방대한 양의 작업이었다. 제1권 머리에는 ‘문학사 이해의 새로운 관점’이란 제목으로 그의 문학사 기술 ‘방법론’이 37면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으로 실려 있다. 방법론이야말로 하나의 문학사를 구성하는 기본 설계로서 뒤따르는 기술작업의 전모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의 방법론은 한국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하나의 총체성 안에서 보고자 하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통의 폭을 오늘날의 세계사적 문제의식을 지니는 제3세계 민족문학사로서의 성과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그가 말하는 이 민족문학사는 국문학 자체가 지닌 폭과 깊이를 두루 드러낼 뿐 아니라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동양 전래의 문학에 대한 재평가삼아 한문학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도 주장한다.

## 주목할 ‘시대구분’...일원론과 다원론 절충

여기에서 저절로 설정되는 국문학의 범위는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으로서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서, 이것은 문화적 축적과 변모의 결과이며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폭이 그만큼 넓다”고 그는 말한다. 문학사는 문학의 역사이만큼 그는 문학사의 ‘시대구분’의 중요성에도 언급하였다. “문학사 뿐 아니라 모든 역사 서술은 먼저 시대구분 문제에 부딪힌다. 시대구분을 하지 않고서는 서술의 순서를 정할 수 없고, 역사의 전개를 설명할 길도 없다”고 말한 그는, 일반사 시대구분의 일원론과 문학사 단독의 시대구분 입장인 다원론을 절충하고 있다. 이러한 절충론은 일견 평범한 원만주의같지만 조동일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문학 자체의 현상에서 시대변화의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르렀다 하더라도 문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와 관련시켜 이해한다든가, 변화의 이유를 캐다든가 하자면 다원론적 생각이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그는 일원론과 다원론을 함께 포용하면서 둘의 대립을 넘어서는 데서 시대구분의 길이 열림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 방법론에서 보면 “고대·중세·근세의 역사적 삼분법, 근대주의 등의 모든 학문적 근거는 진보라는 개념에 입각해 있다. 하지만 후진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보란 항상 서구화만을 의미하게 된다. …여하튼 진보를 후진국의 입장에서 그대로 수락할 수 없다”고 해 놓고, 뒤이어 다시 “영·정조 시대를 근대문학의 시작으로 잡으려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혼선에 비하면 조동일의 대립극복이 편의상으로도라 현명한 것 같다. 실상 한국 역사에서 고대·중세·근대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세계사 통념에 근거해 편의적으로 3분법이 사용되고 있다. 조동일은 장르와 왕조의 변천에다 원시·고대·중세·근대를 전기·후기로 더 세분하면서 적용하고 있다.

조동일의 방법론은 또한 몇 가지 새로운 개념어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 첫째는 문학의 갈래에서 ‘교술(敎述)’을 내세우는 것이다. 고전문학기 갈래에서 “서정·교술·서사·희곡”으로 4분법을 쓰는데, 교술은 가사와 경기체가 등에 해당시키고 있다. 이것은 서정도 서사도 아니면서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의 체계화”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두번째로 그는 시가의 형식과 울격에서 ‘줄’과 ‘토막’이란 말을 쓰고자 하였다. 즉 향

# “문학사는 문학의 실상 측량한 지도”

「한국문학통사」 전5권 펴낸 趙東一 교수

“기왕의 한국문학사에서 어떤 특별한 불만을 느꼈다기보다는 공부를 계속하다보니 이제는 새로운 한국문학사가 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연속성 문제라든지, 서양문학의 준거틀이 우리 문학을 가능하게 데 만능일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근래의 연구들이 개별적으로는 다채로운 성과를 보이는데 그것을 문학사의 공간에서 한데 아우르는 작업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단지 하는 것들이 제가 「통사」를 쓰게 된 동기라던 동기이겠습니다.”

지난 82년 「한국문학통사」 제1권을 펴낸 이래 최근 8·15이전까지의 근대문학을 다룬 제5권을 상재한 서울대 조동일교수(48). 초고 준비기간을 포함해 근 10년간 「통사」의 집필에 매달려오면서 2백자 원고지 1만 2천매가 넘는 분량 속에 대략 2천명의 작가, 5천편의 작품을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조교수가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편향적인 선택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문학의 '실상'과 '판도'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자는 것이었다.

“문학사란 결국 문학의 실상과 판도를 측량해서 지도로 그려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지도를 위해서는 실상과 판도가 풍부할수록 좋죠. 그런 점에서 유기적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의 열거주의는 오히려 문학사 기술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상과 판도의 확대에 기여한 것이 구비문학과 한문문학의 대폭적인 수용이다. 그러나, 조교수 스스로는 “구비문학은 문학사의 공간 속에 자리매기기가 어려워져서” 그리고 “한문문학은 축적된 공부가 짧아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아쉬워 한다.

한편, 「통사」의 또다른 특징으로 꼽히는 쟁점거리는 이른바 시대구분 문제로서, 여느 문학사의 고대·중세·근대식 3분법과는 달리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설정하고 있어 이채롭다.

제6권으로 「통사」를 완결지를 때까지 아직도 조교수는 몇년의 세월을 더 유보해두고 있다. 8·15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읽고 정리해야 할 작품들이 워낙 많은데다가, 종전 이후의 북한문학까지를 거론할 수 있는 문학사의 분단극복 또한 그가 염두에 두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6권의 간행을 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듯한데, 그러나 조교수는 그후의 계획을 벌써 마련해놓고 있다.

“우선 5년에 한번 정도씩 「통사」를 개고할 생각입니다. 집필중에도 그랬지만, 요즘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통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장차 있을 개고작업에 광범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대구분과 이행기문제를 보편적인 차원에서 연구해보자는 것입니다. 가령, 이행기론의 관점에서 서양문학은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으며, 그동안 근대주의론으로 왜곡됐던 제3세계문학의 실상이 이행기론의 맥락에선 어떤 의미로 드러나는가 등을 해명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요즘 출판사의 교섭을 받고 있는, 「통사」의 축약판은 절대 만들지 않을 작정입니다.”

「통사」이전에도 이미 「한국소설의 이론」(1977) 「한국문학사상사론」(1978) 「문학연구방법」(1980) 등의 주목할 만한 저서를 꾸준히 펴냈던 조동일교수는 원래 불문학도,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불문학을 전공하다가 독서가 아닌 학문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싶어 방향을 바꿨다고. 60년대엔 비평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비평의 이론적 근거를 다지는 국문학연구로 귀착, 이제는 스스로를 일러 '원론전공자' '총론전문가'라고 표현한다.

부인 許晶씨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고, 휴일이면 동료교수들과 산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취미.

- 강철주 기자

가의 4구체, 시조의 3장, 현대시의 행을 모두 '줄'이란 말로 통일하고, 또 서양어의 번역인 '音步'를 '토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현대문학 갈래들만이 서구로부터 들어온 특유의 개념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전통이 단절된 것으로 보던 폐단의 산물이기 때문에, 개념어들이 종적으로 소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만은 조동일의 견해가 꼭 설득력을 발휘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점이 있다. 역사에 있어 변모하며 발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전통상 종적으로 소통하려 한다 하더라도 소급하며 고르게 소통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향가·경기체가·가사·시조 등을 있던 대로 인식하면 되지, 어느 것이 서정도 서사도 아니라고 해서 새로이 '교술'이란 개념을 만들어 정돈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또 '줄'과 '토탁'도 그것이 수된 우리 말인 점에서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 말들이 쓰이는 바 일반적 의미가 너무 개방되면 예술의 형식별 특색을 의미하는 데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통의 연결은 문학사 내면에 흐르는 어떤 혈맥과도 같은 생명이며 개성이어야지, 외형적으로 총체성 안에서 꼭 정돈될 수 있는 것이지 의문이 든다는 말이다.

### 정연한 논리력 발휘한 서술문장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동일 자신으로서도 “편의상 설정한 틀이며, 더욱 타당한 새로운 견해들을 기다리는 가설”이라는 뜻의 말도 해놓았다. 그러나 만큼 한국문학사의 장르와 형식에 걸치는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문학계에서 더욱 검토하고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학사 본문 기술에 담긴 방대하고 충실한 내용이다. 서술 문장에 있어서도 그 어느 기존 문학사보다 정연한 논리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5권의 내용 단원마다 끝에 제시한 '참고문헌'들은 근래 국문학계 업적의 정수를 충실히 제시한 것으로서, 이것만으로써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권에서 '구석기문화'로부터 기술을 시

작한 것은 민족문화의 뿌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견실성을 보였다.(이 분야에서는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들이 더 상론되었다라든하는 욕심도 있다.) 제4권의 신소설 부분에서 이인직의 친일과오와, 이해조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것도 문학사 흐름의 성향을 한결 건강케 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 단계 제5권 근대문학편에서 이광수의 장편 「무정」이 이인직의 「혈의 누」에 맥을 대며 허위의식을 지녔던 점이 한차례 심층적으로 논급되지 못한 것을 비롯해, 프로문학의 계열화 현상이 지녔던 의외와 한계, 일제 최말기의 친일문학과 국의 망명문학의 수렴 등에 대해 보다 체계있게 중점적으로 논급이 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나열된 서술에 흐른 인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다섯 권이나 나온 전체 분량 안에서 1919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일제하 문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룬 지면이 부족하게 배정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학사의 방대한 기술은 실로 어려운 일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므로, 한 차례 쉼 후이라도 조동일의 「한국 문학통사」가 장중하게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지식산업사 / A5신 / 각권 500여면 / 각 4500~7000원>

## 광고문의

---

732-1431~3  
출판저널